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 위한 소통 나서

전주시, 청년이음전주서 청년희망단·청년활동가와 간담회 가져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시 청년희망단 및 청년 활동가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청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한 이후 청년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생생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지역 청년들의 건의사항과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만남의 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지난 2016년부터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시 청년희망단 및 청년 활동가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청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며, 현재 18~39세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 계층 40명이 9기로 참여해 활발히 활

동 중이다. 9기 청년희망단은 5개 분과(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로 나뉘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올해 초 공개모집을 거쳐 청년정책 멘토 2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청년들에 대한 멘토링뿐 아니라 효과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기존 정보 공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해답은 청년에게 있다"면서 "지주, 가게에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설된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은 기존 청년정책과를 비롯해 청년일자리과와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 등 총 4개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하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립극단이 들려주는 낭독극

7월 문화가 있는 날 맞아 31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31일 7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덕진예술회관에서 낭독극 '책 읽어주는 남녀-청개구리 포포와 꾸러기들'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가족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익숙한 전래동화와 창작 동화를 토대로 실감 나고 생동감 있는 낭독극 형식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이날 공연 1부에서는 △청개구리 이야기 △책과 공나무 △해님 달님 등 총 세 편의 동화가 낭독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어 2부에서는 클라운 송의 특별출연을 통해 팬터마임과 마술을 결합한 클라운마임 공연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덕진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



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다채로운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전주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이 주관하는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권희성 기자

‘여름철 식중독 주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

전주시, 고온 다습한 여름철 맞아 식중독 예방 5대 수칙 실천 당부

전주시가 고온 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장마철 이후 오염된 물로 인한 식재료 오염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8건(환자수 2481명)에 달한다.

특히 여름철은 구토와 복통, 발열, 설사 등을 일으키는 살모넬라와 병원

성 대장균, 캄필로박터 제주니 등에 의한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식재료 취급 및 조리, 개인위생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에 나섰다.

먼저 시는 이달 중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과 병면을 취급하는 업소와 살모넬라 식중독 우려가 있는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김밥과 토스트 취급 음식점 등 4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현재 식중독 발생 및 식

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운반음식 공급업체 등 7곳을 위생취약시설로 분류하고, 수거 검사 및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식재료, 종사자 개인위생 등 위생 상태 △병동·냉장 제품 적정온도 유지 및 소비(유통)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수칙인 '손보구가세' 홍보를 통해 음식점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손보구가세'는 △손 씻기 생활화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등 다섯 가지 기본 위생 수칙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는 지난 23일 '전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주시 조례 전반을 대상으로 실효성·적합성·운영 실태 등을 진단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과 추진 방향, 전주시 조례 전수 조사, 정비 기준 체계화,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입법 절차 개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향후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전반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진단 △유사·중복 조례, 실효성 부족 조례 등에 대한 정비 기준 수립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해소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입법 절차 개선 방안 마련 △저출생, 디지털 전환 등 국가 아젠다를 반영한 신규 조례 제정 제안 등 총 5개 분야의 과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

전주시는 24일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운동목 부시장 이 참여해 △안행지구 마르케플래티너 옆 요양원 인근 옹벽 △남부시장 둔치 주차장 및 세월교 등 2곳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구조물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요소를 중점 확인했다.

먼저 안행지구 옹벽의 경우 구조물 표면에 배부름 현상이 관찰돼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는 지난 22일 긴급 현장 확인을 거쳐 경찰관의 협조로 곧바로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23일에는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구조물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토

지 소우주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옹벽 구조물을 철거하고, 사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시장 둔치주차장과 세월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천의 일시적인 수위가 상승했을 당시 일부 재벽시장 상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세월교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완산소방서와 현장을 점검하고, 진입 차단 방안과 경고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강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동목 부시장은 "예기치 못한 국지성 호우나 옹벽 붕괴 등 재난 사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과 소방, 행정 등 공공기관과 안내와 통화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전주시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철)는 24일 보배원에서 삼성보육원의 소년소녀가장 등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 90명을 대상으로 초복을 맞아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은행 도청점, 전주병원, 중산신협 후원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으며 삼계탕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